





서가풍경

자연의 미세한 파동이 넘나드는 '언어의 집'

시인 최하림의 서가

충북 영동의 호탄리에는 시인 최하림(61)이 살고 있다. 이곳을 자신의 거처로 삼은 까닭은 다분히 시적이다. 3년 전 이슬비 내리는 경치에 매혹돼 이곳에 병마에 지친 몸과 마음을 누기로 했다. 요즘엔 텃밭에 나가 고추를 따기도 하고 가까운 강가에 나가 물소리에 귀를 열고 걷기도 한다.

“예전엔 나와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엔 세계가 거침없이 바로 내 안으로 들어와요. 시시각각 몸을 바꾸는 사물에 따라서 내 마음도 움직입니다.”

자연의 움직임을 감지한 그의 몸은 “작고 애매한 파동이 아침 내내 일어 새들이 무리로 물어내어도 멈추지 않았”다(《굴참나무숲에서 아이들이 온다》)는 시구(詩句)를 낳는다. 자연의 떨림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그의 근황은 서가에도 투명한 빛을 던지고 있다.

이미 욕심을 버린 탓일까. 그의 서가는 의외로 단출하고 소박하다. 도시에서 자연으로 몸을 '이식' 하면서 많은 책을 지인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버리고 싶지 않는 책이 한권 있다. 신채호의 《조선사 연구초》 초판본이 그것이다.

“사람도 책도 시간 속에 마모돼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신채호의 글은 여전히 형형한 빛을 발합니다. 그만큼 자기 시대를 정직하게 응시했던 사람도 드물죠.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의 책을 소장하고 싶습니다.”

시인이 사는 집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집에는 굴참나무가 자라고 동박새가 온다. 그 숲에 서정주와 오장환과 정지용의 시들이 늘푸른 나무로 뿌리내리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 영동·박천홍 기자

